

고령화 사회를 위한 노인복지회관 사례 연구

이가하¹, 김승인^{2*}

¹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²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Case Study for the Elderly Welfare Center for the Aging Society

Kaha Lee¹, Seung-In Kim^{2*}

¹Dept. of Digital Media Design, Hongik University,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

²Prof. of Digital Media Design, Hongik University,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

요 약 이 연구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국내 노인복지시설, 특히 경로당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차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서 독일, 스웨덴, 일본, 3곳의 사례를 조사하였고 12명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와 사례조사에 따르면 첫째, 많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경로당이 결코 나이가 많은 노인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셋째, 노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로당은 지역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로당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의 특성에 맞고 지역 차이 없이 공통으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 서비스, 노인복지회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노인 복지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elderly welfare center in Korea, which have entered the aged society since 2017. And it suggests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order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 surveyed three cases in Germany, Sweden, and Japan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2 elderly people. According to the interviews and case studie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people participate in many programs, secondly, it should be made that the welfare centers are not used only by elderly people, third, elderly people should be provided with program to participate in self, it is important. Currently, Welfare Centers are applying different programs in different regions, so it is a limitation of this study that I do not know how the program is going on.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cases in Korea and specific programs that can be applied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common without regional difference.

Key Words : Service, Elderly Welfare Center, Aging Society, Aged Society, Elderly Welfare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부터 고령사

회에 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1]. 그리고 이는 2017년 13.5%에서 2030년에는 28.7%, 2040년에는 32.3%로 지속해서 높아질 전망이다[2].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고령 사회로 진입하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academic research promotion fee of Hongik University in 2018.

*Corresponding Author : Seung-In Kim(r2d2kim@naver.com)

Received May 18, 2018

Accepted July 20, 2018

Revised June 20, 2018

Published July 28, 2018

는 데 26년, 115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느리다[3].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4].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1991년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는 경로당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는 아파트의 비율이 전체 주택 수 중 59%를 넘게 차지하게 되면서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노인 여가시설이 되었다[5]. 이로써 고령 사회에 있어서 경로당은 중요한 시설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경로당의 이용률은 농어촌에서는 54.3%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지만 도시에서는 17.2%의 낮은 이용률을 보인다[6].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률이 낮은 도심 속 경로당의 문제점과 노인들의 경로당 경험을 파악하여 국가적으로 경로당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고령 사회의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경로당만의 특징과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경로당이란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선진국은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였기에 고령 사회에 대해 대비가 우리나라보다 잘 되어있을 것이라 이해된다. 본 연구는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 중에 노인부양비가 가장 높은 일본(47.2), 2위 스웨덴(34.8), 3위 독일(35.3)을[7] 대상으로 노인 복지 사례를 조사해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또한, 경로당 이용 경험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을 심층조사하여, 경로당에 대한 경험과 장, 단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경로당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프로그램으로써 어떠한 발전 방향이 필요한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론 조사

2.1 경로당의 기능

경로당은 노인들의 동년배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취미 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장소로써, 노인정이라고도 한다. 경로당의 기원은 선비들이나 서민층이 한군데 모여 담소와 여가활동을 하던 누각과 정자이다. 전통사회의 정자와 누각은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변화 과정에서 그 자취를 감추거나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광복 이후에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여가시설로서 경로당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8].

2.2 경로당의 역할

경로당은 사회의 개인화와 인간의 소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인집단에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부정적인 면들을 완화해주고, 노인들의 연대감을 증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경로당은 노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있으면서 노인들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지역 노인단체로서의 명시적, 비명시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주로 친목 도모와 여가보내기, 휴식기능 등을 수행하는 노인들을 위한 거의 유일한 지역사회 서비스체계로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다[9].

3. 해외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사례조사

3.1 독일

독일은 1932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선진국 중 가장 빨리, 1972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독일 통계청에 의하면 자국의 20~64세 노동인구는 전체인구의 60%를 차지하며, 2060년에는 51%까지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22%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에 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의 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약품 배부, 상처치료, 주사접종 등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노인요양 전문가를 노인 케어법에 근거해 양성하는 등 정부차원의 해외인재 유치에 주력하는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독일에서는 노인들이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와 재산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거와 식사, 간병, 세탁, 청소 등을 제공받는다. 건강이 양호할 시기에는 매월 현금을 지급받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수발과 간병까지 책임진다. 방법은 계약에 포함한다.

독일의 노인문제 해결 방법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노인들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자립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 참여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고 둘째로는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서독 노인들 간 생활을 평준화 한다는 원칙이 있다. 사회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노인 클럽하우스’인데 이는 재가 노인들의 취미, 오락, 스포츠 활동을 돕기 위한 클럽하우스이다. 이는 지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인력은 모두 65세 이상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시설에는 자원봉사클럽, 학습클럽, 당구, 수영, 노래방, 관광여행, 미술 등 30여 종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율동 체조, 사교댄스, 관광여행 프로그램이며 재미도 있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10].

3.2 스웨덴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고령화가 진행되어 유년기 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비슷한 정체형 인구 구조를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이미 19세기에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0년에 17%를 넘어섰다. 2020년경에는 20.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에 고령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11].

스웨덴이 추구하는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사는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다. 고령 노인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불편할 경우, 가사지원 서비스, 간병, 간호, 긴급 호출 시스템, 전화 상담, 주택 개조, 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용구 대여, 미용 서비스, 교통편 제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가사지원 서비스는 청소, 세탁, 조리, 말벗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비교적 나이가 적은 전기, 중기 노년층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취업 정책과 봉사활동,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령자평의회’를 구성하여 2~3개월에 한 번씩 정의회를 열어 지자체의 노인 정책을 보고 받거나 평의회 of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12].

3.3 일본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7.2%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였다[13].

일본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방문 간병, 장단기 입소 등 노인복지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무사시노시 고령자 종합센터’에서는 건강관리, 재택 간병지원을 운영하고 있고 ‘미나토 구립 특별 양호 노인홈’에서는 입욕 서비스, 식사, 상담, 간병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특색에 맞춰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풀장, 골프연습장 등이 있는 시설도 있다. 홋카이도의 34년 된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성방원’에는 방문 간호, 조리, 세탁, 청소,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서비스에는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30여 명의 실무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노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14].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의 인구 3분의 1 이상이 65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즉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시대가 곧 본격화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부족해진 간병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15].

노인 인구의 사회참가와 학습에도 정부 자체적 노력이 있었는데, 이는 고령자가 다른 세대와 함께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보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으로는 ‘자원봉사’와 ‘고등교육 기관을 통한 재교육’ 등이 있었다.

4. 사례 분석

4.1 국내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복지 시설은 크게 4가지로 나뉘고 이중 노인복지관에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크게 ‘노인 사회활동’,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사업’, ‘지역복지 연계 사업’, ‘실버밴드’로 나누어진다. 노인 사회활동에는 ‘공공시설 봉사’ 프로그램,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사업에는 ‘취미 교육’, ‘건강교육’, ‘교양 교육’ 등이 제공된다. 지역복지 연계 사업에는 ‘방문 간호 서비스’, ‘나들이’와 같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들이 모두 분절되어 있어 의료진과 대상자 모두 불

만이다. 또한, 경로당만큼 주거지에서 가깝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16].

최근 각 지역에서는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률과 동시에 노인 문제 예방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설립된 전라북도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경로당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발굴하고 경로당을 통해 노인들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인권교육, 노인 교통안전교육, 마사지교실, 한국학당, 노인정서 지원서비스 등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17]. 또한, 충청남도 계룡시에서는 ‘행복경로당 사업’을 추진해 마을 경로당을 찾아 ‘체조’, ‘웃음 치료’, ‘에어로빅’ 등 어르신 눈높이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18].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관 외에 노인들이 좀 더 집과 가까운 곳에서 취미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로 제공되고 있어 특정 지역에만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아직 노인대비책이 부족한 지역에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이 많다.

4.2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의 비교

해외의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해 볼 때, 국내의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타 국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노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 스웨덴과 일본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또한, 독일과 같이 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

5. 심층 인터뷰

5.1 조사 대상 및 내용

경로당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광명시 지역 경로당과 대구시 북구 경로당, 2곳을 조사하였다. 대구시의 경우, 타 도시보다 고령사회 대비책이 낮아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 만족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낮고 [19]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소일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경로당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기에 적절했다.

경로당 이용대상인 65세 이상 남, 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5일부터 7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으

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 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중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과 참여하지 않는 노인이 있다.

제이콥 닐슨(Jacob Nielsen)의 사용성 테스트 이론에 의하면 6명을 테스트하였을 때 15명에게서 찾아낼 수 있는 대부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20]. 그리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 6명, 이용하지 않는 사람 6명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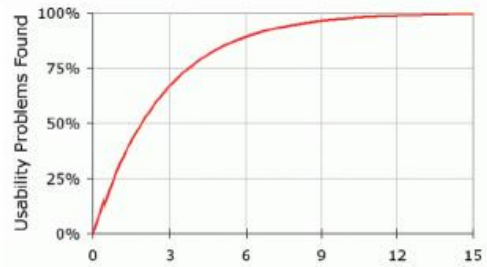


Fig. 1. Number of Test Users[21]

질문항목은 피터모빌의 허니콤(Honey comb Model) 사용성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경로당의 실제적인 경험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2가지 원칙(Useful, Usable)으로 재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전반적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Table 1. In-depth interview interviewee

	Gender	Age	Elderly Welfare Center Experience
A	Male	80s	o
B	Male	70s	o
C	Male	90s	o
D	Male	70s	o
E	Female	80s	o
F	Male	60s	o
G	Female	70s	x
H	Female	80s	x
I	Male	70s	x
J	Female	60s	x
K	Male	70s	x
L	Male	70s	x

Table 2. In-depth interview 1

	Period of Use	Weekly frequency	Transportation	Distance	Program
A	6 years	5 to 6days	Walking	Within 10min.	X
B	less than 1year	1 to 2days	Walking	Within 10min.	X
C	10 year or more	7days	Walking	Within 10min.	X
D	10 year or more	5 to 6days	Bus	Within 20~30min.	O
E	less than 1year	5 to 6days	Walking	Within 10~20min.	O
F	1~2 years	5 to 6days	Walking	Within 20~30min.	X

Table 3. In-depth interview answers 1

	Why do you visiting the Elderly Welfare Center?
A	To spend time
B	For hobbies & health
C	To be with friends
D	To be with friends
E	Good for health / To be with friends
F	To be with friends

Table 4. In-depth interview answers 2

	Why have you not been to Elderly Welfare Center?
G	I think I'm still young
H	I'm reluctant to meet strangers
I	The facility is not good, I have nothing to do when I go there & I have no friends.
J	I'm still doing my work & there's no same age group there.
K	The facility is not good / I'm doing my hobby apart
L	There are no programs to entertain.

Table 5. In-depth interview answers 3

	Pros	Cons	Satisfaction
A	- Use the facilities without paying the dues - spend time talking together - It's good for my health	- Facility is not good - There's few people	4
B	- Talking with friends	- I feel rather old -I have nothing to do but talk	2
C	- It's good to spend time in moderation	- small space - There's few people	3
D	- It's fun to be with my friends	- Have a limited program	5
E	- It's good for my health - It's fun	- Have limited program - Have little revenue from a program - The atmosphere is too quiet (I wish there was music)	5
F	- Made many friends	- I hope there will be many interesting and informative programs. (ex. health exercise, singing class, education, support for daily living, etc.)	3

5.2 조사 결과

경로당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유를 알아본 결과 '아직 자신은 경로당에 갈 나이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두 번째로는 '시설이 좋지 않고 할 것도 없다.'라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답변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로당의 이미지가 젊고 활기찬 분위기보다는 늙고 정적인, 할 것 없이 무료한 이미지라서 젊은 노인층(65세~70대 초반)이 경로당 출입을 꺼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시에서 제공하는 소일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친구들과의 수다는 물론 건강, 수익까지도 챙길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적어 참여 인원이 적은 것을 단점으로 꼽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은 주로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적당한 시간 보내기 외에는 딱히 할 것이 없고 경로당의 위치가 접근성이 좋았지만 오는 사람이 한정적이어서 아쉬워하였다.

6. 결론

이 연구는 해외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 사례를 알아보고 국내 경로당 사용자들과 비사용자들을 심층 인터뷰함으로써 앞으로 고령사회의 대책으로 경로당이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연구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지만, 노인들이 이용하기엔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규모도 일반적으로 대규모 시설 위주라 편안하게 이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2]. 하지만 경로당은 아파트마다 의무로 설치되어있고 인터뷰의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통 도보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이 아닌 경로당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응답한 장, 단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경로당의 개선사항은 첫째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음악을 틀어놓는 등 경로당의 분위기를 밝게 하여 경로당이 결코 나이가 많은 노인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노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다른 경로당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다 파악하지 못했고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완벽히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로당 사례를 좀 더 조사하여 국내의 특성에 맞고 지역 차이 없이 공통으로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REFERENCES

- [1] S. Hong, (2018.05.09.), Newsinside,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495318>
- [2] S. Choi, (2018.05.06.), Business Post,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1533
- [3] S.W. Son, (2018.01.25.), YeongNamilbo,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125.010060723010001>
- [4] K.H. Chung, S.h. Na, J.K. Koo, (2000), A Study Aimed to Activate the Various Programs and Effectuate the Operation of Old People's Home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 pp. 125-152
- [5] S.Y. Kim, C.O. Oh, 2013, Evaluation and Needs of the Elderly for Spatial Characteristics of Senior Center in Apartment Complex,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2(5), 33-41
- [6] K. Ok, (2016.12.19.), The Hankyoreh,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75149.html>
- [7] H. Kim, (2017.11.27.), Segyeilbo,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26001099>
- [8] (1993), Korean ethnic encyclopedia, Seoul : Korea Institute of Mental Culture
- [9] K. Lee, S.J. Kwon, J.D. Kwon, (1992), Activation plan of Elderly welfare cent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10] H. Lee, (2010.04.23.), 100ssd,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6>
- [11] D.S. Lee, (2017), Four countries(USA, Germany, Sweden, Japan) Initial elder care facilities research, social science research, 34(1), 175-225
- [12] H. Lee, (2008.11.07.), 100ssd,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9>
- [13] Y.Kim, (2018.05.17.), Hot issue, insight, <http://www.insight.co.kr/news/154024>
- [14] K. Hwang, (2008.07.26.), 100ssd, do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8>
- [15] (2017.01.05.), Korea Trade News,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25930>
- [16] Y. Ko, (2018.05.02), The Kyunghyang Shinmun,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cle=201805022200005&code=940601
- [17] Y. Kim, (2017.12.20.), Jeonbuk domin newspaper,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622>
- [18] T. Jang, (2018.04.26.), Geumgang Ilbo,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787>
- [19] S.W. Son, (2018.01.25.) YeongNamilbo,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125.010010714270001>
- [20] J. Nielsen, (1995.01.01.), How to Conduct a Heuristic Evaluation, Nielsen Norman Group, <https://www.nngroup.com/articles/how-to-conduct-a-heuristic-evaluation/>
- [21] J. Nielsen, (1995.01.01.), How to Conduct a Heuristic Evaluation, Nielsen Norman Group, <https://www.nngroup.com/articles/how-to-conduct-a-heuristic-evaluation/>
- [22] B. KIM, E. OH, Y. YUN, (2015), A Study on the Multi-functional Cultural Center for the Elderly,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0, 55-60
- [23] M.Y. Kim, S.J. Byun, (2018), The Improvement Index of

Smart Public Service to Advance Information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6(5), 43-53

DOI : 10.14400/JDC.2018.16.5.043

- [24] J.W. Han, H.S. Bae, H.T. Lim, (2017.03),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through Analysis of Service Cases for Children and Older Citizen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3), 1-7
DOI: 10.14400/JDC.2017.15.3.1

이 가 하(Kaha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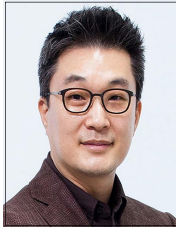


- 2017년 03월 :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석사)
- 관심분야 : 사용자경험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시각디자인

▪ E-Mail : kahalee@naver.com

김 승 인(Seung-In Kim)

[정회원]



- 2001년 3월 :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교 교수
- 2006년 3월 :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혁신센터 센터장
- 2017년 1월 : 사단법인 한국서비스

디자인학회 회장

- 관심분야 : 사용자경험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시각디자인
- E-Mail : r2d2kim@naver.com